

유아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언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

박동영^{1*}

¹경운대학교 간호학과

The Influences of 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Verbal abuse of Early Children Mother's

Dong-Young Park^{1*}

¹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유아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요인 간에 경로를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함으로써 언어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1년 12월 7일부터 12월 25일까지 D시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20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정을 실시한 후 최종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최종모형의 적합도는 χ^2 통계량은 99.603(0.000), GFI는 .960, AGFI는 .905, CFI는 .912, IFI는 .913, NFI는 .899, SRMR는 .706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스트레스, 분노, 분노 표현은 언어적 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언어적 학대 요인으로 확인된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분노를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verbal abuse in early childhood mothers and to examine the fitness of a path model among these variables. The goal of the study was to provide fundamental data on ways in which verbal abuse by early childhood mothers can be prevented. Methods: The data was collected by using self report questionnaires from December 7th to 25th, 2011. The subjects were 320 early childhood mothers who had children in kindergarten. In order to estimate the hypothesized model,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AMOS 18.0 program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Parenting stress, anger and anger expression demonstrated a direct effect on causing verbal abuse by early childhood mothers. This study suggest that parental education program are necessary which a early childhood mothers can be express positively about parenting stress and anger.

Key Words : Early Children Mothers,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ger, Anger Express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행위 및 방임 등을 행하는 것으로 주로 가정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며 피해자의 대부분이 의사표현이 미숙한 아동이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 학대 문제는 그 후유증이 아동의 전생애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1년 아동학대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가 3,312(3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임 2,919(31.9%)건 순이었다[1]. 학대행위자는 부모에 의한 사례가 5,039건(83.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

*Corresponding Author : Dong-Young Park(Kyungwoon Univ.)

Tel: +82-10-8541-8217 email: buddy8255@naver.com

Received June 20, 2013

Revised July 17, 2013

Accepted September 6, 2013

타나 부모에 의한 언어적 학대와 방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6세미만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가 전체 피해 아동의 28.2%(1714건)로 나타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가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아동학대는 그 피해자가 성장기 아동이라는 점과 그 영향이 장기화된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가 심각하며[2] 이러한 아동학대의 주학대자는 어머니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학대받은 아동은 분노를 제대로 표출하거나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난폭한 행동이나 언어로 표현하는 경향이 높고[3] 타인과의 갈등상황에서 부적절하게 대처하며 정서·행동장애·비행·학교폭력·가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현대사회의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부모 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 양육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아동학대 연구에서 [5]는 언어적 학대 관련 변인들 중 양육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핵가족화가 확대되면서 자녀양육에 관한 세세한 것을 자연스럽게 전수받을 수 없게 되면서[6] 이전보다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더 가중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어머니가 자녀 양육의 많은 몫을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과 일상적인 가사일 등은 어머니의 과중한 부모역할 수행으로 이어져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초래하며[7] 이는 자녀에게 강압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거나 비일관적인 훈육으로 이어지게 된다[8].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에 대한 불만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아동에게 짜증이나 신경질을 내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향해 감정적인 표출로 이어져 아동학대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9].

언어적 학대는 비신체적 학대로서 아동을 거부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욕하거나 위협하여 심리적인 손상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학대는 신체적 학대 못지않게 아동의 정신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체적 학대와 달리 언어적 학대는 가정에서 평상시 일어나는 가벼운 일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으며[10] 주로 양육을 맡고 있는 어머니에 의해 일어나므로[11] 아동학대의 주학대자인 어머니의 특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학대의 영향, 아동학대 예방정책, 아동학대 보호 네트워크, 아동학대의 인식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12], 연구 대상도 초등학교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13,14]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영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연구[15]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일반적인 원인으로 부모의 과거 학대경험, 음주, 부부폭력, 경제적 스트레스 등이 아동학대의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어 왔다[16].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심리적인 특성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17,18] 부모의 심리적, 성격적 특성은 아동의 기질과 같은 개인적 특성보다 아동학대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9].

영유아는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며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언어적 학대 관련 요인들을 통합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관련 요인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고, 그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언어적 학대 예측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중재전략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지침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유아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를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적합도를 검증한다.
- 유아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를 설명하는 최적의 수정모형을 제시한다.
- 유아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직접·간접효과를 검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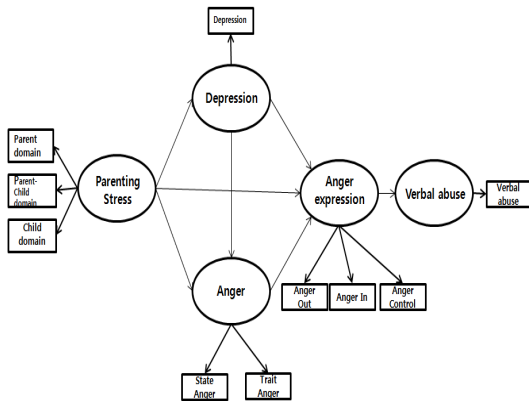
가설적 모형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문헌고찰을 이용하여 외생변수 1개와 내생변수 4개로 구성되었다.

외생변수는 양육스트레스가 해당되고 내생변수는 우울, 분노, 분노표현, 언어적 학대가 해당된다. 외생변수인 양육스트레스는 매개내생변수인 우울, 분노, 분노표현, 최종내생변수인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고, 매개내생변수인 우울은 다른 매개변수인 분노, 분노표현, 최종내생변수인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며, 분노는 다른 매개변수인 분노표현, 최종내생변수인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모형을 구성하였다[Fig 1].

연구가설

이론적 기틀에서 도출된 Fig 1의 가설적 모형을 기초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으며, 외생변수와 내생변수들 간의 관계, 내생변수들 간의 경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Fig. 1] The hypothetical model

- 가설 1. 우울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 가설 1-1. 양육스트레스는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분노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 가설 2-1. 양육스트레스는 분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2. 우울은 분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분노표현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 가설 3-1. 양육스트레스는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2. 우울은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3. 분노는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언어적 학대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 가설 4-1. 양육스트레스는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2. 우울은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3. 분노는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4. 분노표현은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언어적 학대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대상자에게 실

증적 자료를 수집하여 구축한 모형의 적합성과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구조방정식 모형 연구이다.

2011년 12월 7일부터 12월 25일까지 D시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13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 어머니 3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한 후 개별 봉투에 연구동의서와 질문지를 동봉하여 밀봉한 후 담임선생님이 원아를 통해 각 가정으로 배부하였으며 어머니가 직접 응답하도록 한 후, 응답한 질문지는 다시 원아를 통해 가져오게 하여 회수하였다. 총 34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331부를 회수하였으며, 설문지를 검토한 결과 응답이 무성의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11부를 제외한 총 32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 수는 구조모형 분석 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기 위한 표본의 크기가 200개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 [20]을 충족하므로 총 32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는 부모역할에서 느끼는 특정한 스트레스의 유형을 뜻하며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한 정도나 부담감을 말하며[21] 본 연구에서는 [22]가 개발한 Parenting Stress Index (PSI)를 [23]이 번역한 한국판 양육스트레스(K-PSI)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이 도구는 부모-자녀 체계의 역기능적인 측면이나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요인을 밝히고자 개발한 부모용 자가 보고식 질문이다. PSI는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부모가 자녀 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그 근원에 따라 부모 영역 12문항, 부모-자녀관계 영역 12문항, 아동영역 12문항의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잘 모르겠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2.2.2 우울

우울(depression)은 현실에 부적절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는 슬픈 감정, 침울, 무가치감, 공허, 절망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정서상태를 말하며[24] 본 연구에서는 [25]가 개발한 우울척도(BDI)를 [26]이 번역한 한국판 BDI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이 도구는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나타내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도구에 의한 우울점수는 0점에서 63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86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90이었다.

2.2.3 분노 및 분노표현

상태분노는 평소보다 좀 더 예민해져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얼굴을 붉히며 화를 더 자주 내는 것처럼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강도가 변할 수 있는 정서 상태를 말하며, 특성분노는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 반응하는 경향으로 주어진 상황을 좌절이나 귀찮은 것으로 인지하는 개인의 성향을 말한다[27].

분노 및 분노표현 척도는 Spielberger, Krasner, Solomon(1988)[28]이 분노경험과 분노표현을 동일한 척도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한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XI :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29]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STAXI을 사용하였다. 분노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태분노(10문항), 특성분노(10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노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분노표출(8문항), 분노억제(8문항), 분노조절(8문항)로 세 종류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상태분노 .89, 특성분노 .82, 분노표출 .74, 분노억제 .76, 분노조절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상태분노 .92, 특성분노 .87, 분노표출 .80, 분노억제 .75, 분노조절 .76이었다.

2.2.4 언어적 학대

언어적 학대(verbal abuse)는 부모가 자녀에게 욕설을 하고 헐뜯거나 모욕을 주며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는 것을 말하며[30] 본 연구에서는 [31], [32]의 언어적 학대 척도를 [33]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할 점수를 말한다.

이 도구는 언어적 학대를 5가지 하위영역으로 원장적 언어 5문항, 위협적 언어 2문항, 경멸적 언어 6문항, 거부적 언어 7문항, 적대적 언어 5문항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점, '잘 모르겠다' 3점, '조금 사용하는 편이다' 4점, '자주 사용한다' 5점으로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0.85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90이었다.

2.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 19.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 통계량을 사용하였다.
-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산출하였다.
-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로 검증하였다.
- 언어적 학대에 대한 경로모형의 적합도 평가와 경로구축은 AMOS 18.0을 이용하였으며, 모형의 구조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였다.
-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χ^2 , χ^2/df , AGFI(Adjusted goodness-of-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GFI(Goodness of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CN(Critical N) 등을 구하였다.
- 언어적 학대와 관련된 변인들 간의 직접·간접효과에 대한 분석은 부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0대부터 40대까지 분포되었으며 31-35세 이하가 42.2%, 36-40세 이하가 39.3%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전문대졸 36.9%, 대졸 34.1% 순이었고 직업은 전업주부가 57.5%로 취업주부보다 많았다. 아기 연령은 49-60개월 이하가 39.7%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29.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Their Mothers (N=320)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other's age(yr)	Below 30	38	11.9
	31-35	135	42.2
	36-40	126	39.3
	41yr more	21	7.6
Education	Below High school	81	25.3
	College	118	36.9
	University	109	34.1
	Graduate school	12	3.7

Occupation	Housekeeper	184	57.5
	Office work	36	11.3
	Professional	66	20.6
	Services	34	10.6
Children Age	Below 36	91	28.4
	Below 48	102	31.9
	Below 60	127	39.7
Children Gender	Boy	166	51.9
	Girl	154	48.1
Monthly income	Below 200	55	17.1
	Below 200-300	95	29.7
	Below 300-400	85	26.6
	More than 400	85	26.6

3.2 양육스트레스, 우울, 분노, 분노표현 및 언어적 학대정도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변수인 부모영역은 총 5점 중 평균 평점이 2.77점이었고 부모-아동영역 1.63점, 아동영역 2.16점이었다. 우울은 총 3점 중 평균 평점이 0.75점이었고, 분노의 하위변수인 상태분노는 총 4점 중 평균 평점이 1.33점, 특성분노는 1.71점이었다. 분노표현의 하위변수인 분노표출은 총 4점 중 평균 평점이 1.87점이었고 분노억제는 1.70점, 분노조절은 2.32점이었으며, 언어적 학대는 총 5점 중 평균 평점이 1.80점이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변인들의 정상분포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 구조

방정식 모형분석의 주된 추정법인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연구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정상분포조건(왜도<2, 첨도<4)을 고려했을 때[34]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Table 2].

3.3 양육스트레스, 우울, 분노, 분노표현, 언어적 학대의 상관관계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Table 3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측정 변인들 간에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변수인 부모영역은 분노조절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있었고, 부모-아동영역은 모든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아동영역은 분노조절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우울은 모든 변수들과 유의하였고, 분노의 하위변수인 상태분노는 모든 변수들과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성분노는 모든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표현의 하위변수인 분노표출은 모든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있었고 분노억제는 모든 변수들과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언어적 학대는 분노조절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상관분석 결과를 통하여 양육스트레스, 우울, 분노, 분노표현, 언어적 학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Table 2] Mean Scores of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ger, Anger expression, Verbal abuse (N=320)

Latent Variables	Measured Variables	Min-Max	Mean±SD	skewness	Kurtosis
Parenting Stress	Parent domain	1.000-4.250	2.768±0.600	-0.194	-0.184
	Parent-Child domain	1.000-3.857	1.627±0.502	0.720	0.472
	Child domain	1.000-4.000	2.163±0.596	0.425	0.206
Depression	Depression	1.000-2.263	0.747±0.382	1.013	1.413
Anger	State Anger	1.000-3.400	1.328±0.405	1.689	3.206
	Trait Anger	1.000-3.455	1.714±0.438	0.953	1.170
Anger expression	Anger Out	1.000-3.714	1.866±0.378	0.904	2.138
	Anger In	1.000-4.000	1.706±0.457	0.866	1.355
	Anger Control	1.000-4.000	2.326±0.447	0.514	0.568
Verbal abuse	Verbal abuse	1.000-4.600	1.803±0.496	1.397	2.821

[Table 3] Correlations among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ger, Anger expression, Verbal abuse (N=320)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	1									
x2	0.292**	1								
x3	0.357**	0.416**	1							
x4	0.526**	0.194**	0.263**	1						
x5	0.286**	0.217**	0.254**	0.387**	1					
x6	0.117**	0.097*	0.195**	0.236**	0.448**	1				
x7	0.139**	0.135**	0.214**	0.242**	0.422**	0.566**	1			
x8	0.280**	0.215**	0.184**	0.319**	0.270**	0.285**	0.254**	1		
x9	-0.009	-0.113**	-0.046	0.003**	-0.089*	-0.095*	-0.155**	0.097*	1	
x10	0.273**	0.271**	0.354**	0.330**	0.302**	0.210**	0.287**	0.225**	-0.06	1

x1=Parent domain, x2=Parent-Child domain, x3=Child domain, x4=Depression, x5=State Anger, x6=Trait Anger, x7=Anger Out, x8=Anger In, x9=Anger Control, x10=Verbal abuse

[Table 4] Fitness Statistics of Hypothetical Structural Model

Goodness	χ^2 (p-value)	df	χ^2/df	GFI	AGFI	CFI	IFI	NFI	SRMR	CN
Criteria	(.05)		2-3	.90-1	.90-1	.90-1	.90-1	.90-1	.05	200
pre-modified	200.399(.000)	27	7.422	.934	.866	.858	.860	.842	.065	140
post-modified	88.065(.000)	12	7.339	.965	.985	.921	.911	.922	.060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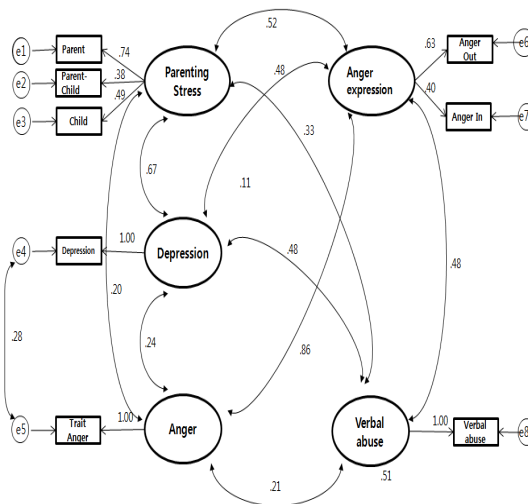
3.4 측정모형의 검증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 검증

양육스트레스, 우울, 분노, 분노표현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독립변인들과 언어적 학대 간에 가설적 모형을 설정한 후, 최대우도측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카이제곱(χ^2)=88.065, ($p<.000$), GFI=.965, AGFI=.985, CFI=.921, IFI=.911, NFI=.922, SRMR=.060, CN=1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카이제곱(χ^2)값이 통계적으로 0.05이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매우 적합한 모형이지만, 카이제곱(χ^2)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측정모형과 현실자료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카이제곱(χ^2)값이 표본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카이제곱(χ^2)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더라도 다른 지표들이 적합기준을 만족한다면 양호한 모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MacCallum et al., 2001)[35] 절대적합지수 GFI, AGFI, CFI, IFI, NFI, SRMR, CN이 모두 기준인 0.9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타당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의하지 않은 경로가 있어 가설적 모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Table 4][Fig 2].



[Fig. 2] The path diagram of Hypothetical model

3.5 모형의 수정 및 검증

수정 경로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는 통계적 유의성과 이론적 의미를 고려하고 실제를 설명하는데 가장 근접하면서도 간명한 모형을 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양육스트레스에서 분노로 가는 경로와 우울에서 언어적 학대로 가는 경로를 제거하였다. 이상의 모형 수정 결과 수정모형의 부합도는 χ^2 통계량은 99.603(0.000), GFI는 .960, AGFI는 .905, CFI는 .912, IFI는 .913, NFI는 .899, SRMR는 .076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합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해 보면, GFI, AGFI, CFI, IFI, NFI 모두 0~1사이의 값을 갖는데 NFI를 제외하고, 0.9 이상으로 모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RMR은 0.05보다 작으면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데 최종모형에서 SRMR=0.076으로써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Table 5].

수정 경로모형의 경로계수

수정모형의 경로계수를 평가하기 위하여 모수추정치와 그 수치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울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beta=.644$, $t=9.04$), 분노와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beta=.237$, $t=5.941$). 분노표현과 우울, 분노와의 관계는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표현은 높았고($\beta=.246$, $t=5.34$), 분노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표현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beta=.753$, $t=15.215$). 언어적 학대와 양육스트레스, 분노, 분노표현을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언어적 학대는 높았고($\beta=.265$, $t=4.054$), 분노 수준이 높을수록 언어적 학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318$, $t=2.07$), 분노표현 수준이 높을수록 언어적 학대는 높은 것($\beta=.597$, $t=3.132$)으로 나타났다[Table 6][Fig 3].

수정 경로모형의 효과분석

수정모형의 변인 간 직접·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644$), 분노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우울을 통하여 분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153$). 이를 통해 양육스트레스가 많아지더라도 분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분노 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우울이라는 매개변인이 분노 수준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우울과 분노를 매개로 하여 분노표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73$). 우울은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246$), 분노를 매개하여 분노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울과 분노표현 사이의 분노는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는 변인으로 검증되었다. 양육스트레스는 언어적 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beta=.265$), 우울, 분노, 분노표현을 매개하여 언어적 학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직접적으로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분노, 분노표현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분노는 수준이 높을수록 언어적 학대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분노표현을 매개하여 언어적 학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노는 분노표현의 효과를 통하여 언어적 학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7].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는 각 경로에 대한 모수 추정치와 유의도를 검증하고 직접·간접 및 총효과를 분석한 후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론적 기틀에서 도출된 총 10개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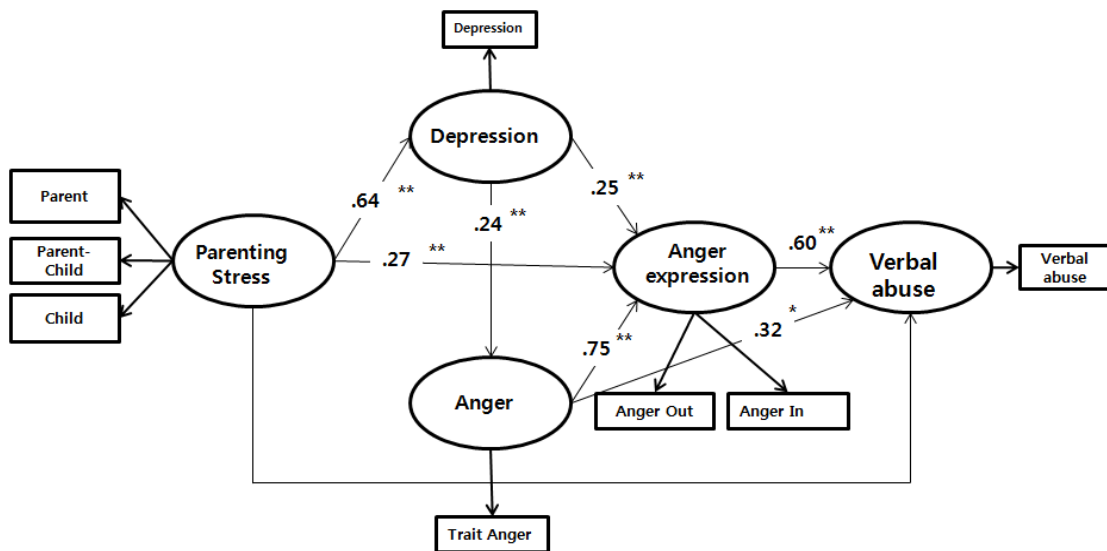
- 가설 1. ‘양육스트레스는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접효과($\beta=.644$, $p<.05$)가 유의하게 나타나 지지되었다.
- 가설 2. ‘우울은 분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접효과($\beta=.237$, $p<.05$)가 유의하게 나타나 지지되었다.
- 가설 3. ‘양육스트레스는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접효과($\beta=.27$, $p<.05$)가 유의하게 나타나 지지되었다.
- 가설 4. ‘우울은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접효과($\beta=.25$, $p<.05$)가 유의하게 나타나 지지되었다.
- 가설 5. ‘분노는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접효과($\beta=.75$, $p<.05$)가 유의하게 나타나 지지되었다.
- 가설 6. ‘양육스트레스는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접효과($\beta=.265$, $p<.05$)가 유의하게 나타나 지지되었다.
- 가설 7. ‘분노는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접효과($\beta=.32$, $p<.05$)가 유의하게 나타나 지지되었다.
- 가설 8. ‘분노표현은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접효과($\beta=.60$, $p<.05$)가 유의하게 나타나 지지되었다.

[Table 5] Fitness Statistics of Modified Model

Goodness	χ^2 (p-value)	df	χ^2 /df	GFI	AGFI	CFI	IFI	NFI	SRMR	CN
Criteria	(.05)		2-3	.90-1	.90-1	0.90-1	.90-1	0.90-1	.05	200
post-modified	88.065(.000)	12	7.339	.965	.895	.921	.911	.922	.060	178
Modified Model	99.603(0.000)	15	6.640	.960	.905	.912	.913	.899	.076	184

[Table 6] Parameter Estimates of the Modified Model

Endogenous variables	Predictor variables	S.E.	Standardized estimate	t-value	SMC
Depression					0.414
	Parenting Stress	0.515(0.057)	0.644	9.040**	
Anger					0.056
	Depression	0.272(0.046)	0.237	5.941**	
Anger expression					0.715
	Depression	0.166(0.031)	0.246	5.340**	
	Anger	0.442(0.029)	0.753	15.215**	
Verbal abuse					
	Parenting Stress	0.275(0.068)	0.265	4.054**	
	Anger	0.359(0.173)	0.318	2.075*	
	Anger expression	1.147(0.366)	0.597	3.132**	



[Fig. 3] The Path diagram of the modified model

[Table 7] Effects of Predictor Variables on Endogenous Variables for Modified Model

Endogenous variables	Predictor variables	Direct effect(p)	Indirect effect(p)	Total effect(p)	SMC
Depression					0.414
	Parenting Stress	0.644(0.011)*	-	0.644(0.011)*	
Anger					0.056
	Parenting Stress	-	0.153(0.008)**	0.153(0.008)**	
	Depression	0.237(0.011)*	-	0.237(0.011)*	
Anger expression					0.715
	Parenting Stress	-	0.273(0.012)*	0.273(0.012)*	
	Depression	0.246(0.020)*	0.178(0.012)*	0.424(0.028)*	
	Anger	0.753(0.009)**	-	0.753(0.009)**	
Verbal abuse					
	Parenting Stress	0.265(0.009)**	0.115(0.009)**	0.380(0.010)**	
	Depression	-	0.178(0.012)*	0.178(0.012)*	
	Anger	0.318(0.014)*	0.449(0.006)**	0.131(0.009)**	
	Anger expression	0.597(0.008)**	-	0.597(0.008)**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요인 간에 경로를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함으로써 언어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3-6세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양육스트레스는 언어적 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 [36]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5]의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의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37] 처벌적인 양육태도의 최고 수준인 아동학대를 예측하는데 주요한 변인으로 보고하였다[38]. [39,40]도 양육스트레스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처벌적인 양육행동으로 언어적 학대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에 의한 언어적 학대는 아동의 위축행동이나 과잉행동, 공격행동 같은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때 이에 대한 적절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분노와 분노표출은 언어적 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는 일

상생활에서 아동을 향해 흔히 표현할 수 있으며 분노는 각 개인이 가진 분노경향성의 차이에 따라 분노표출 행동이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한번 경험한 분노는 다양한 상황에서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18].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는 자녀 학대와 관련이 있고, 분노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가정 내 폭력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으며[41] 어머니가 분노를 안으로 숨기기보다는 밖으로 표현할 경우에 아동학대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42]. 또한 분노표출이 통제되지 않을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하게 되며 부모가 분노조절을 잘 하지 못할 경우 아동에 대한 학대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43].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시 분노수준이 높은 부모가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의 선행연구결과 어머니의 분노와 분노표출이 아동학대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학대 행위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지속되었음을 짐작해볼 때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는 자녀에 대한 통제나 처벌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중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측정변수 중 우울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접적으로 언어적 학대를 예측하지는 못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4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45,46]도 부부간 갈등으로 인한 우울은 짜증스러움과 같은 분노의 표현을 야기하며 이러한 감정은 다시 아동을 거칠게 대하는 학대로 이어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우울은 아동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으나 정서적 스트레스나 정신적 건강, 가족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양육행동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7]은 우울의 원인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지적하였는데 특히 유아기 아동은 어머니의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의존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육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다.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48]은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와의 정서적 조율 측면에서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우울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강압적이고 과잉통제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어머니의 강압적인 양육을 경험한 아동은 정서적으로 취약할 뿐 만 아니라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9].

또한 아동양육에 있어 어머니가 느끼는 무력감과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며 아동에 대한 언어적 학대를 높게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5]. 따라서 어머니의 우울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므로 언어적 학대를 유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분노, 분노표현은 어머니에 의한 언어적 학대의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아동을 거부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욕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아동 양육에 필요한 양육지식과 기술 등 정보제공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어머니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

- [1] <http://health.mw.go.kr>, 2011.
- [2] H. S. Doh., M. J. Kim., S. W. Kim., M. K. Choi, J. H. Kim., "The Influences of Marital Conflict and Maternal Anger on child Maltreatment", Journal of Korean Child Study, 32(5), pp.85-101, 2011.
DOI: <http://dx.doi.org/10.5723/KJCS.2011.32.5.85>
- [3] Y. B. Lee., "Study on Witness of family violence during the childhood effects on attitude of family viol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5.
- [4] K. S. Kim., "The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Anger, Anger Coping Strategies and Schoo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 393-410, 2003.
- [5] J. M. Choi., H. J. Woo., "The Study on the Effect of the Maternal Variables on the Verbal Abus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5), 225-235, 2002.
- [6] E. J. Baek., S. A. Han., M. J. Kang., "Study on Utilization and Preference Type of Childcare Support Service for Infants", The Journal of Korean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6(4), 209-232, 2011.
- [7] M. W. Kim., M. J. Kang., "The effects of double-income couples' gender role attitudes and recognition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8), 25-35, 2011.
DOI: <http://dx.doi.org/10.6115/khea.2011.49.8.025>
- [8] H. S. Min., Y. K. Moon., "Relationship among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Maternal stress, Maternal Style and Infant Development", 22(1), 43-56, 2013.
- [9] Milner, J. S., & Chilamkurti, C., "Physical child abuse perpetrator characteristic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3), 345-366, 1991.
DOI: <http://dx.doi.org/10.1177/088626091006003007>
- [10] Y. M. Kim., "Study of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s' Characteristics, Family Environment of Low Income Family Children and the Child Negle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2003.
- [11] Gelles, R. J. & Cornell, C. P., "Intimative violence in Famili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85.
- [12] K. S. Baek., "The Influences of Parenting Attitudes and the Marital Satisfaction of Parents on Child Abus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6(2), pp 181-198, 2011.
- [13] E. H. Choi., "(A) study on child abuse by parents, their parenting and chil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2005.
- [14] Y. H. Kim., S. J. Yoo., "Centered on Elementary School Pupil; The Study of Child Abuse and Health Status", J Korean Acad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 Nurs, 9(4), 651-669, 2000.
- [15] J. M. Goo., "Influence of Stress of Employed Housewife on Child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2011.
- [16] H. K. Lee., "Examining the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s and Drinking on Child Maltreatm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No 17, 111-142, 2006.
- [17] E. K. Ha., C. M. Park., "Special Issue: A Study on the Status of Child Abuse and Its Related Variables -Based on a Primary School in Daegu",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28(4), 351-362, 2002.
- [18] H. S. Park.,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Their Anger Tendency on Their Child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woon University, Gyeongsangbuk-do, 2009.
- [19] Whipple, E., & Webster-Stratton, C., "The role of parental stress in physically abusive families", Child Abuse and Neglect, 15(3), 279-291, 1991.
DOI: [http://dx.doi.org/10.1016/0145-2134\(91\)90072-L](http://dx.doi.org/10.1016/0145-2134(91)90072-L)
- [20] G. S. Kim.,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Hannarae Publishing, Seoul, 2007.
- [21] Coplan, R. J., Bowker, A., & Cooper, S. M., "Parenting daily hassles, child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in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2003.
- [22] Abidin, R. R.,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1(4), 401-412, 1992.
- [23] K. M. Chung., K. S. Lee., J. A. Park., H. J. Kim., "Standardization Study for the 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 (K-PSI)",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3), 689-707, 2008.
- [24] J. G. Ji.,(Ed.). "Medical dictionary(1st eds.)", Seoul: Academy, 2006.
- [25] Beck, A. T..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1967.
- [26] Y. H. Lee., "Relations between attributional style, life events, event attribution, hopelessness and dep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993.
- [27] Spielberger, C. D.,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scale", Port Huron, MI: Sigma assessments system, 1996.
- [28] Spielberger, C. D., Kranse, S. S., & Solomon, E. P.,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Eds.) Individual difference, stress and health psychology, pp.203-222, Washington, DC: Hemisphere, 1988.
DOI: http://dx.doi.org/10.1007/978-1-4612-3824-9_5
- [29] K. K. Chon., D. W. Han., C. H. Lee.,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Anger and Blood Pressur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1), 60-78, 1997.
- [30] <http://www.mw.go.kr>, 2000
- [31] S. H. Ko., "Studies on defining child abuse in Korea and the perceptual differences between mother and child toward the child abu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992.
- [32] J. Y. Yon., "The Status of Child Abuse and the influence of related variables", Sang Myung University, 9(-), 93-122, 1992.
- [33] H. J.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verbal abuse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 Ang University, Seoul, 2002.
- [34] Hong, S., Malik, M. L., & Lee, M.,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7-645, 2003.
DOI: <http://dx.doi.org/10.1177/0013164403251332>
- [35] MacCallum, R. C., Widaman, K. R., Preacher, K. J., & Hong, S. "Sample Size Factor Analysis: The Role of Model Error",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6 (4), 611-634, 2001.
DOI: http://dx.doi.org/10.1207/S15327906MBR3604_06
- [36] H. J. Hwang., "A Study on Influences Relationship among Matern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tress and Child Abu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Daegu, 2005.
- [37] Abidin, R. R.,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1990.
DOI: http://dx.doi.org/10.1207/s15374424jccp1904_1
- [38] Rodriguez, C. M. & Green, A. J., "Parenting stress and anger expression as predictors of child abuse potential", Child Abuse and Neglect, 21(4), 367-377, 1997.
DOI: [http://dx.doi.org/10.1016/S0145-2134\(96\)00177-9](http://dx.doi.org/10.1016/S0145-2134(96)00177-9)
- [39] J. M. Goo., "Influence of Stress of Employed Housewife on Child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2011.
- [40] M. H.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child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osuk University, Jeollabuk-do, 2000.
- [41] Jarvis, K. L., Gordon, E. E., & Novaco, R. W.,

"Psychological distress of children and mothers in domestic violence emergency shelter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0(6), 389-402, 2005.

DOI: <http://dx.doi.org/10.1007/s10896-005-7800-1>

- [42] Kim., Y. M.,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Anger Tendency and Child Abuse Potenti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2007.
- [43] H. Y. Kim., H. J. Jang., "A study of the Influences of Parents Risk Factors on the Types of Child Abuse",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6(2), 269-286, 2002.
- [44] K. H. Kim., Y. S. Kim., "Process analysis of poverty influencing on child abuse and neglect-Analyzing mediating effect of parent's depression and family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7(5), 847-859, 2008.
DOI: <http://dx.doi.org/10.5934/KJHE.2008.17.5.847>
- [45] Urke, L., "The impact of maternal depression on familial relationships."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iatry*, 15(3), 243-255, 2003.
DOI: <http://dx.doi.org/10.1080/0954026031000136866>
- [46] Shay, L. L. & Knutson, J. F., "Maternal depression and trait anger as risk factors for escalated physical discipline" *Child Maltreatment*, 13(1), 39-49, 2008.
DOI: <http://dx.doi.org/10.1177/1077559507310611>
- [47] J. I. Kim., "A Study on the Impact of Acute Stress and Chronic Stress Experience on Depression in Low-income Mothers with Children",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No. 25, 25-56, 2009.
- [48] Field, T., "Prenatal depression effects on the fetus and neonate", In J. Nadel, & M. Muir(eds.), *Emotional Development*, (pp. 317-33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Quarterly 18, 376-395, 2005.
- [49] H. J. Le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on Maternal Depression and Infants' and Toddlers' Temperamental Negative Emotionality", *Soonchunhyang University*(<http://schhumanities.com>), 31(2), pp. 230-258, 2012.

박 동 영(Dong-Young Park)

[정회원]



- 2006년 8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 석사
- 2012년 8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 박사
- 2011년 3월 ~ 2012년 8월 : 대구과학대학교 간호과 전임강사
- 2012년 9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의·생명공학